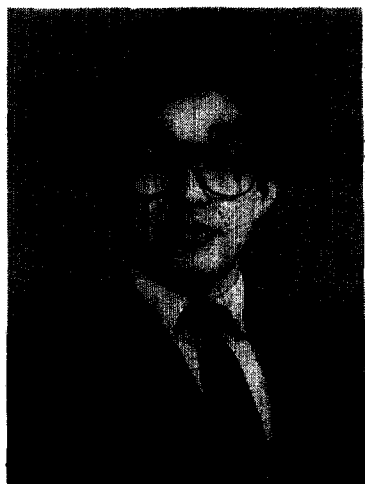


성경적 조형관

—현대조각의 창조적 실현을 위하여—

The Biblical Views on Plastic Art
for the Creative Realization of Modern Sculpture.

오의석



오의석,

1956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86년 첫 개인전을 가졌고 지금까지 50여회의 전시회에 작품을 발표하였다. 논문으로 “정크(junk)조각의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 조각에 나타난 산업폐품의 이용에 관한 검토” 등이 있다. 현재 효성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하양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refers to the Biblical views on plastic art for the creative realization of the sculptures in the atheistic background of modern art.

At first, we discuss the Biblical views on sculpture: 1. The Bible does not forbid making a sculpture, but rather forbids worshipping it as an idol. 2. The God expects a sculptor to be “a little creator”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and to participate in the creative world of God as a fellow worker. These two Biblical principles are very important for the Christian sculptors to keep in mind for the meaning of his job and social position.

Next we investigate Christian views on materials, space, and themes which constitute the basic frames of sculptures. We are able to summarize the Biblical views on sculptures as follows:

1. As to materials of sculptures, a Christian sculptor should realize them as the gift of God, manage them with thank and care, work with the Creator within the limits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m, and do his best to be a skilled technician so that he could express the potentiality of them.
2. As to space, a Christian sculptor should be a steward of it, and thus work with the responsibility for the space and place which a sculpture occupied. Furthermore a Christian sculptor should add “What God is pleased to see” to God’s creative world or restore the original order in the deformed and destroyed world since the Fall.
3. As to themes, a Christian sculptor may select any theme in the world. However, the point of views in dealing with the themes of the sculpture should be Biblical. When sculptors deal with the human being,

there are often two possible dangers in the Christian perspective: Human being is, first, easily idolized as an object of worship, and used only as the object of the formative analysis and experiment. Thus, modern Christian sculptors should regard human being as a character while they express him using the methods of the contemporary sculpture. The themes of sculpture in the abstract world, however, can be easily handled with by a Christian sculptor once he realizes both the God's calling as "a little creator" and the responsibility as a steward in space and environment.

I. 서론

20세기를 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 조각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시대의 문화, 특히 오늘날의 현대미술이 하나님의 죽음과 절대가치의 상실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 작가의 신앙고백과 그 실천적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창작의 활동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유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신앙고백과 그 증거가 자신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될 뿐 전공 영역인 현대미술의 장(場)에서는 무력하고 공허한 외침으로 부인될 때 그들의 작업은 어려운 것일 수 밖에 없다. 몇몇 예외적인 작가와 작품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미술의 정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조형적 작업의 결과들은 시대착오적인 노력으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불교 또는 무속과 연관된 세계와 이미지를 다루는 경우에 전통의 맥을 이어 가는 좋은 시도로 명을 듣기 쉽고 노장(老莊)사상에 깊이 심취된 작가의 행동들이 큰 관심을 끄는 예가 많다. 반면 성경적 이미지와 비전을 드러내는 조형적 추구는 서구적인 것으로, 경건과 절제된 삶의 자세는 예술가 답지 못한 모습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러한 미술계의 흐름과 압력 속에서 성경은 더 이상 조형작업에 있어서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 조형작가들은 그들의 독자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상의 문제들은 그리스도인 조각가를 포함하여 기독교 미술인 전체가 세상, 곧 현대의 미술세계로부터 경험하는 공통적인 갈등이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조각가들만이 겪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세상으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으로부터 받는 압박감이란 점에서 보다 진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성경이 조각을, 특히 특정한 형상을 만드는 구상조각을 금하고 있다는 성경적 이해를 가질 때 조각가의 작업은 위축되며 확신에 찬 실행을 기대하기 어렵

다. 조각의 발생과 기원을 살펴 볼 때에 초기의 조각들을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과 관련하여 해석함은 이미 정설이 되어 있다. 물(物) 자체에 비인격적인 초자연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되는 주물(呪物) 또는 인격적인 정령이 숨어 있다고 생각되었던 영물의 두 형태는 조각이 발생적으로 신의 개념을 보기 위한 감각적 실현물로서 우상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각가의 선조들이 구약성경이 금하는 우상의 제작과 숭배에 기여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후 예들인 현대의 조각가들 역시 이러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작업에 대해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 우선 조각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조각가의 소명을 통해서 조각과 조각가의 성경적 위치와 정당성을 밝히고자 한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 조각가들이 성경으로부터 받는 우상숭배 금지 명령의 한계를 바로 알고 조형적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31장에 나타난 인물 브사렐(Bezalel)은 하나님 이 모세에게 명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 지명하여 불렀던 건축가이며 조각가이다. 하나님은 브사렐을 지명하여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출 31:3-5) 하였다. 브사렐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을 받았던 한 조각가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조각가 역시 (1)성령의 충만 (2)지혜와 총명과 지식 (3)재능 (4)연구의 자세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조각의 일에 자신을 불렀다는 소명의식이다. 불행하게도 현대의 조각가들은, 그리스도인 조각가들까지도, 이 점에서 확연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신앙과 교의 안에서 창조주로부터 받은 재능으로 봉사한다고 믿을 수 있었던 중세의 조각가들은 여전히 브사렐의 신분과 전통 안에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미술의 성격이 변하였고 현대작가의 신분과 위상이 변모한 지금 소명으로서 자신의 조각을 바라보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여기에 그리스도인 조각가의 갈등이 있다. 조각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분명하고 조각가로서의 부르심을 확실히 가진 조각가의 다음 문제는 조각의 내용과 방법이다. 과연 어떤 조각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조각가의 할 일은 무엇인가? 성막과 기구의 식양(式樣)을 명하신 하 나님이 지금도 조각가에게 분명한 형상을 보이시며 지정하여 주신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특수한 이례적인 경험으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각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요소들과 이것들을 다루는 조형작업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일이다. 조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 공간, 소재에 관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그 결과물인 조각작품도 성경적이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하 나님이 기뻐하는 조각의 원형을 정의하고 확연한 형상의 제시를 시도할 수 없지만 조각을 구성하는 인자들을 성경적으로 다룬다면 성경적 세계관의 조형적 성취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현대조각의 창조적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시작으로부터 완성까지 큰 힘과 도움을 준 두권의 책을 소개하면 쉐퍼(F.A.Schaeffer)의 「Art and Bible」과 로크마커(H.R.Rookmaaker)의 「Art Needs No Justification」을 들 수 있다. 이 책들은 성경 속에서 예술의 적절한 위치를 설정하고 현대예술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의 바른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Ⅱ. 조각에 대한 성경적 관점

1. 구약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

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 십계명 이외에도 이방신상에 대한 경계는 창세기로부터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구약성서에 전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명령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예술과 조각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그의 저서 「예술과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답하고 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柱像)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임이니라”¹⁾는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성경은 구상(具像) 예술품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경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십계명과 함께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하셨던 성막에는 모든 형태의 조형(造形) 예술이 그가 친히 보여준 식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실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이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도록 허락한 성전에도 그룹의 형상, 사슴, 석류, 열두 마리의 소, 백합화, 사자, 종려와 핀 꽃 형상 등의 조형예술품이 각 장소에 놓여졌던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있다.²⁾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증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라고 말씀하시므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리뱀³⁾ 바로 예술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예증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구상예술의 잘못은 그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쉐퍼(F.A. Schaeffer)의 「예술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성막과 성전의 조각품이나 “구리뱀”처럼 실제적인 형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異像)과

1) 출애굽기 20:4~5

2)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84, p187.

3) F. A. Schaeffer, 「예술과 성경」, 조병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p 20~28

4) Ibid., p31.

그 해석을 통해서 세계역사의 변천과정을 말해주는 다니엘 2장의 신상(神像)은 하나님께서 비록 환상 속의 사건이지만 조각상을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좋은 사례이다.

임금님께서 보신 환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쇠요,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 쇠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흙, 놋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겨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⁵⁾ (다니엘 2:31~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에 관한 해석은 정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 왕국,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사제국(페르시아 BC. 538~333),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BC33~63),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또는 로마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로 보면서 쓰인 돌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날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밝혀 준다.

이 신상은 각 부분이 다른 재료로 형성된 혼합매체(Mixed-Media)의 특성을 지니며 재료의 변화에 따른 대제국의 흥망을 예시하는 매개체이다. 다니엘(Daniel)은 예언자로서 느브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이 신상의 비밀을 풀어 줌으로써 “너희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⁶⁾는 찬사를 듣는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지방의 통치자로 바벨론의

5) 공동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1977, 구약 p. 1462

6) 다니엘 2 : 47

제사들을 거느리는 자리에 오른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세계역사를 계시하는 한 방법으로 환상 속에서 신상의 이미지(image)를 사용하신 일례로서 이 기사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신상의 마지막 결과이다.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 그 발을 쳐 부수자 신상 전체가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다는 인용문의 후반부 기사는 앞서 살펴 본 구약성서의 전반적 성격인 우상을 세우지 말고 절하며 섬기지 말라는 명령과 일치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구리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분향하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부수어 버렸던 사건(열왕기하 18:4) 통해서도 다시 확인되는 것은 구약성경이 구상조각품의 제작과 사용은 인정하나 그것이 우상화됨에는 진노한다는 사실이다.

2. 신약

신상(神像)은 기원전 5세기 후반부터 그리이스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원래 그리이스인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다. 피디아스(Pheidias)를 대표로 하여 신을 만드는 시대의 작품들은 균형, 비례, 조화, 안정감 등의 조형성을 보인다. 신상제작의 배경은 플라톤의 절대미, 이상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신상으로서의 인물상은 특정한 개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비례와 질서에 의해 발견된 미적 대상의 조립으로서 전체적인 이상화가 이루어진 절대적 대상이다. 초기 기독교의 이방 전도자 사도 바울(Paul)은 그의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아테네의 아레오파고(Areopagus) 법정에서 가진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도전하고 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테네시를 돌아 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 보았

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 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사람 손으로 채워 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 낸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지했던 때에는 눈을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사도행전 17:23-30)

본문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과 무지를 지적한 후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창조주 되심, 그의 주권, 편재하심, 풍성한 공급자 되심, 시공과 역사의 섭리자이며 또한 가까이에 있어 우리의 아버지되심을 전하면서 그분은 금, 은, 돌을 가지고 만들어 낸 우상으로 여겨서 아니됨을 권고한다. 그리고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을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이라고 시간적 구분을 지음으로써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진 우상숭배의 일들이 이제는 -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의 역사와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변화된 증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는 -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중에도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

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유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초기 기독교가 그리이스의 다신교 문화와 로마의 황제숭배등 우상숭배의 문화에 대해 철저히 대립하고 있음을 본다.

이상에서 논의 된 대상의 조각들은 이방의 신앙과 우상(idol)으로서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제작되고 숭배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준다. 성서학자 할레이(Henry H. Halley) 박사의 지적과 같이 인간이 죄를 자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지식을 잃어 버리고 존재의 신비를 해결하려고 어둠 속을 헤매며 해, 비 등의 자연력, 권력을 가진 왕, 성읍과 민족의 주신(主神)들을 신격화하고 그 신들을 더욱 실체화하기 위하여 신의 모습을 나타낸 조상(彫像)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하게 된 것이다.⁸⁾

결국 이같은 다신교적 우상숭배의 전통은 하나이신 하나님의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인류문화의 어둡고 깊은 수렁으로 보인다. 바울이 사도행전의 기사와 로마서의 기록을 통해 알려주는 바는 구약성경과 같이 “우상을 세우지 말고 절하며 섬기지 말라”는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더이상 그와같은 무지함과 어두움의 일에 있을 수 없는 권고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조각을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III. 조각가의 소명

앞에서 조각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살펴 본 것은 성경이 조각 자체를 금하지 않고 때로는 조각을 명령하고 조각품을 예표와 제사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7) 공동번역 성경, 대한성서공회, 1977, 신약 p257.

8) 로마서 122~25

는 사실들 속에서 조각의 위치를 성경 안에서 확실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조각을 행하는 조각가의 위상을 성경에 근거해서 찾아 보고자 함이었다. 조각이 성경 안에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조각가의 존립도 성경 안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9장의 기사를 보면 아르테미스(Artemis)신전⁹⁾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큰 돈벌이를 시켜주던 은장색(silversmith) 데메드리오라는 장인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을 느끼면서 장인과 동업자들을 모아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¹⁰⁾고 말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상대로 일으키는 소요가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통적인 문화 종교와의 갈등의 표현이다. 모든 조형예술가는 예외없이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의 예술이 새로워 질 것을 요구 받는다. 알지 못하던 시대의 허물 속에서 계속 일할 수 없기 때문이며, 새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¹¹⁾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신분이 본문의 기사와 같이 장인의 위치에 있었던 18세기 이전에는 그 갈등이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문화의 대제사장들(the high priests of culture)로서 극진한 존경을 받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히 잉여인간(剩餘人間)으로 취급되는 현대사회에서는¹²⁾ 그의 특이한 신분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talent)를 개발하여 숙련된 장인으로서 그의 나라에 봉사하는 종의 복된 위치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소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신의 죽음과 부재를 선언한 현대문화와 미술의 배경 속에서 조각가는 신과 무관하거나 신을 찾고 있거나 또는 신에게 저항하고

9) H. H 할레이, 「성서핸드북」, 박양조 역(서울: 교문사, 1972), p106

10) 에베소에는 약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 그 여신은 어머니로서 숭배되었으며, 많은 유방을 갖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풍요와 생식의 신이었다(한영해설 성경전서 p221)

11) 사도행전 19:26

12) 골로새서 3:10

13) H. R. Rookmaaker, 「기독교와 현대예술」, 김현수 역(서울: IVP), p 8

도전하는 존재로 남아있기 쉽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조각가는 과연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의문과 그 해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제임스 켈리(James. J. Kelly)는 그의 조각론의 첫머리를 조각가로부터 시작하면서 조각의 병존(ambivalence) 문제를 다룬다.¹⁴⁾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각의 전통과 흐름 속에서 조각가는 개업자(practitioner)와 혁신자(innovator)로서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특히 비평가(the critic)와 수요자(the consumer)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더욱 확대 된다. 이 조각론이 가지는 약점은 조각의 현실에만 집중하여서 그 근원과 기원을 유념하지 않은 채 조각가의 위상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실습(practition)과 혁신(innovation) 이전에 조각을 창조(creation)로 바라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과 사회구조, 특히 미술계와 미술시장을 통해서 조각과 조각가를 이해하려 들 때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¹⁵⁾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력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할 때 조각가를 창조적 존재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조각을 창조적 표현활동으로 접근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셰퍼(F.A.Schaeffer)는 예술작품과 관련하여 '창조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도 인간도 모두 창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어서 말씀으로 무(無)에서부터 창조하실 수 있고, 인간은 유한하므로 이미 창조되어진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창조해야 한다"¹⁶⁾는 사실로 창조의 규모와 한계를 설정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다. 창조적 예술가로서의 하나님(God as creative artist)은 무형의 세계로부터 형태(form)를 이끌어 내신 바로 그 분이시다.¹⁷⁾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창조적 조형 예

14) James J. Kelly, *Sculptural Idea*(Mi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81), pp.2~3.

15) 조지 딕키(George Dickie)의 예술제도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16) F.A. Schaeffer, *Op. cit.*, p. 52.

17) Clyde S. Killy, *Christianity and Aesthetics* (Chicago : Inter-varsity Press, 1969), p. 18.

술의 근원이며 또한 모범이 된다. 특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창세기의 기사는 모든 조각 행위의 원형¹⁸⁾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그 주체인 하나님은 최초의, 최고의 조각가이기도 하다. 인간의 창조는 단순한 지으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breathing)에 인간이 생명 (living soul)으로 완성된다. 여기서 인간은 단순히 형태(form)에 그치는 조각을 초월하여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창조적 작품도 인간의 창조적 존재성에 비교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조각은 창조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을 실현하는 일이며 조각가는 창조자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작은 부분을 닮아보는 일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상식에 가까운 논의는 조각표현의 창조성과 조각가가 창조적 존재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제한적 위상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결국 조각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창조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조각은 그 창조적 조형표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각가의 창조적 신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것은 조각을 조각되게 하는 주체로서 조각가가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확신하면서 일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조각의 방향과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평과 수요는 조각을 돕고 고무시키는 부차적 요소이지 조각이 있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창조적 조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결여는 창작을 인기와 명예, 공급과 돈과 힘에 종속되게 할 위험을 갖고 있다. 작품은 창조력의 결과로서 그 자체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창조자로서 행하는 조형적인 표현은 정당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쉐퍼(F.A.Schaeffer)도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의 창조력에서 나온 모든 일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⁹⁾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18) 조각의 기초가 되는 소조(modelling)와 테라코타(terra-cotta)는 흙을 이용한 작업이다.

19) F. A. Schaeffer, Op. cit., p. 52.

구약의 기사에 무수히 발견되는 우상의 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력을 잘못 사용한 예들이다. 또한 바벨탑의 축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치 않으면서 인간적 합의에 의해 시작된 불순종한 문화의 대표적 경우이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²⁰⁾는 생각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²¹⁾는 문화명령에 거스리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흠으셨고 성은 중단되었으며 그후로 인간에게 언어의 혼잡이 오게 되었다. 이 기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대적하는 문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잘못 사용한 인간의 실패를 예시해 준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속에서 현대의 조형작가들도 오늘날 자신의 작업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전하는 문화의 죽음 속에서 바벨탑을 축조하고 있는 벽돌을 옮기는 아닌가 살펴 보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재료, 공간과 장, 소재 등을 통해서 성경에 기초한 조형관을 검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며 작은 창조자로 부름받은 현대의 그리스도인 조각가들이 바른 조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안인 것이다.

IV. 재료와 기법

조각은 재료로서 실체적인 물질을 사용하여 창조된다. 조각의 전통적인 재료로 많이 이용된 흙, 돌, 나무, 청동과 철등은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바로 그 상태이거나 일차적 가공을 거친 물질들로서 손으로 촉지할 수 있는 양(量)과 부피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영역, 예를 든다면 문자나 기호, 또는 소리를 매

20) 창세기 11:4

21) 창세기 1:28

개로 하는 작업들과 달리 창조 이전에 이미 창조주의 개입이 있게 된다. 조각가는 이미 창조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창조해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전제 속에서 일한다. 여기서 만물이 하나님께로서 비롯된 것임을²²⁾ 믿는 그리스도인 조각가는 그의 조형행위가 하나님과의 동역임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 속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짐을²³⁾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조각가의 재료관은 더욱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조각의 모든 재료는 그 재료가 지닌 고유한 물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조각가는 그 속성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다. 이미 창조된 것으로 창조할 수 밖에 없는 존재로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하는 작은 창조자의 제한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점토는 일정한 습기를 유지시킬 경우에 얼마든지 덧붙이기와 깎아내기가 가능하지만 한 번 떨어져 버린 돌과 나무가 아무 흔적도 없이 원래의 상태로 복원될 수는 없다. 철재(鐵材)의 용접(welding)에 의해서 쉽게 가능한 공간적 표현을 돌과 나무를 깎아서(carving) 재현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인다면 유사한 상태와 부피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감각을 느낄 수 없으며 그 존재의 구조도 심히 허술해 보일 것이다. 때문에 조각가는 각 재료가 지닌 물리적 특성의 한계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하는 기술자(technician)가 되어야 한다. 물론 미에 대한 감각과 조형의 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조각가의 자질이다. 그러나 미적인 감각과 조형의 표현이 실제적인 물질의 성형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역량은 여전히 조각가에게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야외공간에 대형의 작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도의 점검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조각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대체나 구조의 보강등이 조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료를 적절히 선택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은 조형

22) 골로새서 1:16

23) 로마서 1:20

작업의 진행과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모든 재료는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적 제한성과 함께 조각가에 의해 발견되고 드러내 질 수 있는 고유한 잠재적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질감을 예로 들어 살펴 보면 같은 성분의 브론즈(bronze)작품이라도 그 표면의 거칠고 매끄러운 정도에 따라서, 또는 화학적 처리에 의한 색상의 변화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과 광택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돌, 나무, 철재의 작품들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재료가 지닌 재질의 변화와 강조는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적절히 전개하고 강화시키는 한 요소로서 작품의 전체적인 성격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한 작품에 여러가지 재료를 복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거나 재질의 대비 등의 효과를 작품의 주된 효과로 시도할 경우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오늘날 현대조각의 한 흐름으로 재료의 물성(物性)을 실험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결과들을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물질에 내재한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찾아서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단 재료에 대한 성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료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만물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기술우위의 인간적 추구로 대체시키려 하는 태도임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조형관의 전체성을 고려할 때 재료는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조형을 농사일에 비유한다면 재료는 씨를 뿌리는 땅과 같은 것이다. 농부가 밭을 가꾸는 것은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둬 알곡 때문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각가의 재료에 대한 집착과 탐구도 그 재료에 담길 주제와 소재,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다. 재료가 후자의 내용들을 담는 수단 이상의 가치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재료에 대한 추구가 조형의 목적으로 확대된 것은 무리한 노력으로서 조형의 형식과 내용 안에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V. 공간과 장(場)

조각은 부피를 지닌 물질적 재료를 사용하는 작업의 결과로서 그것이 놓여질 장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바닥이나 벽면에 밀착된 조형행위가 아니라 수평, 수직의 면으로부터 솟아 올라 돌출되거나 집적되어지는 공간점유의 방식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땅과 대지를 점유하는 작업의 형식으로서 조각의 전시와 설치하는 공간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조형활동이다. 가시적인 모든 시각예술은 빛의 차단 또는 눈을 감아 버리는 일에 의해서 그 전달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조각작품도 이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조각은 손으로 감지할 수 있고 몸에 부딪히는 덩어리(mass)로서 환경과 장(場)안에 존재한다. 때문에 빛과 눈의 반응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인지의 기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각의 자리지킴은 일회적인 공연처럼 한 순간의 비침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이다. 그러면서도 가구나 주택처럼 사용되는 활용의 공간이 아니라 오직 볼 것으로만 존재하는 조형의 방식이기 때문에 조각은 차지하는 자리와 점유하는 공간에 대해 책임있는 조형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각이 놓여지는 장(場)의 허락과 제공은 미술계로부터,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사회로부터 비롯된다. 때문에 조각가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조형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조각가의 작업실을 떠나서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이 화랑이나 미술관, 또는 거리나 광장, 건물의 로비 등 어떤 곳일지라도 타인의 감상을 전제로 하는 전시와 설치일 경우 그 작품은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여기서 책임이라 함은 감상자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항변하는 작품 외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감상자의 기호와 취향, 욕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조각작품으로서 그 놓여진 위치에서 그 몫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설명이 생략된 침묵과 보는 이의 기대를 뛰어 넘는 상상의 자유를 누려야만 할 것이다.

결국 조각의 공간점유에 대한 책임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계성을 초월하여 창조공간 전체에 대해서 작품이 지니는 근원적 책임으로 발전한다. 특히 조각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일 때 그는 그의 공간차지 행위가 창조주가 허락한 무한한 선물 가운데 하나임을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책임은 전시와 감상이 있기 이전의 문제로 환원되어 조각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근원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각은 본질적으로 공간 획득으로 인한 책임을 지니며 더 나아가서 조각의 주변공간에 대해 영향력을 갖는다. 부조와 같은 평면작품은 예외일 수도 있지만²⁴⁾ 조각은 틀(frame) 속에 갇혀 있지 않다. 회화,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인물화나 정물화를 예로 들어 보면 중심인물이나 정물이 있기 위해서는 캔버스에 적당한 양의 공간을 필요로 하듯이 조각은 마치 회화 속의 중심이 되는 대상처럼 그 주위의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필요한 공간의 성격은 조각의 크기(scale) 뿐만 아니라 재료, 형태상의 특징과 성격 등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장소와 환경의 장(場)은 그에 어울리는 적절한 크기, 재료, 형태, 내용의 조각을 필요로 한다. 실내공간의 경우 전시장의 규모, 배경, 조명, 전체적인 색조와 분위기 등이 작품과 깊은 관계를 갖는 반면 실외의 야외공간일 때 주위의 조형적 상황만이 아니라 작품이 세워질 지점의 자연적 여건까지도 점검되어야 한다. 감상자의 활동 범위와 동선에 맞추어 작품의 적절한 높이가 결정되어야 하며 그 배경으로 벽면의 구조물이나 수목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확 트인 공간을 확보해야만 작품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작품과 지면의 접촉하는 방식도 작품의 조형성과 중량, 부피, 지반의 구조, 풍속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환경성을 갖는 야외조각에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자연공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조각은 그 형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공간 점유성

24) 부조(relief)의 경우도 접하는 벽면을 바닥으로 환원해 보면 입체로 확산된 양의 공간 점유로 볼 수 있다.

과 함께 그 설치로 인한 주위 공간과의 상호 영향 등을 창조주와의 동역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때로는 조각이 창조 공간에 대해 저항적으로 맞서는 대립의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자연에 순응하며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지닌다. 그 어느 경우이든지 조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에 대한 덧붙임이거나,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고 본래의 모습을 잃은 공간의 질서를 회복하고 환원시키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같은 공간 점유와 창조의 행위는, 조각가가 공간의 조성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특별한 은총의 하나이며 자유인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하는 조형창조의 작업이다.

조각은 화일이나 박스안에 정리될 수 있는 평면의 작업이 아니며 특정한 시간 안에 연주되고 공연된 후 사라지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다. 실체적 물질로 축적되고 인지되는 부피로서 공간을 점유하며 장(場)안에 펼쳐져서 그 전모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삼차원의 입체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조각가는 사회가 제공하는 공간과 환경,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만유 공간의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책임 안에서 동역의 길을 찾아야 한다.

VI. 소재

현대조각의 소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만 크게 대별해 보면 자연, 인간, 인공적인 대상(object) 등의 실재성을 갖는 세계와 이에 근거하지 않는 순수 조형의 추상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을 다루는 구상적 형태는 자칫하면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형상의 제작으로서 우상화할 위험을 갖고 있다. 조각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볼 때 초기 인물상의 출현은 영적 대상물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앗시리아, 바벨론, 에집트, 그리스 등의 고대국가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형태를 빌어서 신의 모습을 담아 내고자 하였던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며, 비교적 인물에 대한 인격적 이해와 실재적 접근을 시도

한 로마시대의 초상과 기념상들, 중세교회의 성상까지도 숭배의 대상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르네상스를 거쳐 20세기의 현대미술에서 인간은 조형적인 해석의 소재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며²⁵⁾ 더 나아가 다다(Dada)와 초현실주의의 작품에서는 상황속에 던져워진 조형의 대상물들 중의 하나로 그 위치가 변모하고 1960년대 이후의 환경적인 작업과 개념적인 작품속에서 인간은 단순한 오브제의 하나 또는 재료와 방법으로 취급되고 소용되는 위상의 하락을 보여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조각의 현장에서도 조각의 기원으로부터 최근에 출현된 현대조각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조각사 전반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방식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 다양한 인간관에 기초한 인물상이 여러 가지 양태로 창조되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은 영혼, 인격, 소재, 대상, 재료와 방법 등의 조형적 시각 접근이 가능한 조각의 주된 소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현대조각의 소재로 선택하였을 때 성경적 인간관에 기초한 올바른 접근은 무엇일까? 우선 인간이 영적인 상징과 숭배의 대상으로 묘사되거나 변형됨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형적 해석과 표현의 수단으로 지나치게 대상화되는 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지(知), 정(情), 의(意)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 또한 몸의 형태(form)를 갖고 공간에 거하는 미적 존재이기도 한 인간에 대해 성경적으로 접근하여 표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표현과 방식에 있어서는 현대적이기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현대의 그리스도인 조각가에게 순수한 추상적 형태는 위와 같은 구상세계의 위험과 난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생각될 수 있다. 특히 공

25) F.A.Schaeffer, 「基督教과 現代思想」, 洪致模 譯, 서울:성광문화사, 1982, p. 47. 세퍼는 큐비즘(cubism) 특히 피카소의 작품세계를 예로 들어서 추상의 성격을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향하는 비약의 세계관으로 보면서 현대의 불건전한 단절상태로 지적하고 있다.

간과 환경의 작은 조형 책임자로서 담당하는 역할은 성경적으로도 적절한 위치임을 인정할 만하다. 그것은 적어도 인간에 대한 관심과 해석의 포기라는 약점을 지니면서도 인간을 위한 어떤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세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도 같이 그 추상의 세계는 의미있는 것이기 보다는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리와 접촉한다. 여기서 조각가는 모방자나 재현자가 아니라 순수한 창조자로 일하게 된다. 셰퍼(F.A.Schaeffer)는 추상의 세계에 대해서 작가가 신(神)처럼 되어 작업하며 그 결과 표현된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즉 상호소통이 불가능한 의미단절의 상태로 현대의 불건강한 모습을 지적한 바 있다.²⁵⁾ 그러나 앞장에서 조각가의 소명을 “작은 창조자”, 즉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지닌 창조력의 작은 소유자로 정의하였다. 비록 창조의 규모와 질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갖지만 모든 작가는 그의 조형 작품의 세계 안에서 셰퍼가 지적하는 대로 신처럼 일한다. 그것은 대상을 해체시키거나 부정하는 추상의 세계만이 아니라 대상을 존중하고 묘사하는 구상예술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표현되는 것은 대상의 실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품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출발하였더라도 이미 그것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로 전환을 뜻한다면 작품이 의미하는 바, 앞선 대상의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인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추상의 세계를 가능케 하며 추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가들의 전제이다.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것만이 작품 안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조형은 얼마든지 자유로와 질 수 있다. 조각의 경우 그 세계는 점, 선, 면의 기본 조형에서 발전하여 양(量)과 궤(塊), 공간, 구조, 운동, 색, 질감 등의 다양한 조형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것들을 조절하고 통합하여 이루는 순수 추상의 세계는 분명히 그 무엇을 닮은, 즉 어떤 형상을 새기거나 빚어 만들지 아니함으로써 우상의 대상이 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추상의 세계가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간과 장(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조각가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일부인 공간이 보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고 관리됨을 의미한다.

Ⅶ. 요약 및 결론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 조각가가 느끼는 두 가지 문제 중에 성경이 구상조각을 금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구상조각이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즉 우상화되는 일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음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된다. 조각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관점과 함께, 조각가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함께 참여하는 작은 창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성경이 현대의 조각가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과 신분에 대한 지침이다.

둘째로, 세상으로부터 느끼는 갈등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재료에 대해서 창조주와 동역임을 인정하며 감사와 절제의 태도를 지녀야 하며 기술적인 숙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 조각이 점유하는 공간과 장(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보기에 좋은 조형의미들을 덧붙이며 왜곡되고 어그러진 조형질서를 회복하는 자로서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소재의 선택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소재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성경적 관점이 분명하고 풍성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조각의 주된 소재인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경배의 대상으로 우상화되거나 조형적 해석과 실험의 대상으로만 취급함은 잘못이며 적절한 인성적 존재로 파악하며 현대적 조형방식의 접근이 요청된다.

조각의 소재로서 자연 대상의 조형적 변형, 또는 순수한 조형 단위로부터 출발하는 추상세계는 작은 창조자로서의 소명과 공간과 환경의 관리자로서 갖는 책임의식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 조각가가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 환경조형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성경적 조형관이 조각을 형성하는 구성인자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시각이 풍성해짐으로써, 그리고 현대적 조형실험의 방법들이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서 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조각가의 작업현장에서 꾸준히 실험되고 구체화 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조형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한다.